

# 장성군, 축령산 기반 청년·지역민 창업 지원

### '편백숲 어울림 치유여행' 활동 모임체 27일까지 모집 체험·먹거리·여행·축제 기획 등 12개 팀 사업화 지원

장성군이 전국 최대의 편백나무 군락지이자 치유의 숲으로 유명한 축령산을 기반으로 청년과 지역민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장성군은 올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편백숲 어울림(林) 치유여행' 프로젝트에 참여할 제2기 활동 모임체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한다. 농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람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장성군은 축령산 편백숲을 활용하는 해당 사업을 지난 2019년 제안해 공모에 선정된 이후 4년간 7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사업의 주체인 '활동 모임체'는 지역 주민과 청년들로 구성된다.

한 모임 당 10명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 39세 이하 청년은 5명 이상까지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 1기 활동 모임체 9팀·118명을 선발해 축령산 편백숲 자원을 활용한 제품·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했다.

올해 2기 활동 모임체는 총 12개 팀 내외로 선발해 '체험활동', '먹거리', '여행 콘텐츠', '축제 기획', '청년 창업' 등 편백숲 자원 사업화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장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축령산 권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편백숲 경영 능력을 갖춘 건설한 활동 모임체를 선발해 적극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지난해 '편백숲 어울림 치유여행'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축령산에서 외줄타기로 균형감각을 익히고 있다. <장성군 제공>

## 강진군 특별재난지역 수도요금 전액 감면

강진군이 지난달 초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피해 주민들의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강진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를 근거로 지난달 5~8일 집중호우 기간 실제 피해를 본 900여 가구에 대해 1400여만원을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8월 부과분(7월 사용분) 1개월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군에서 피해 가구에 감면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재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가구는 상하수도 사업소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피해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 혜택을 준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피해를 본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장흥 '공군 에어쇼' 갑작스런 취소 뒷말 무성

### 행사 시작 6시간 전 취소 통보에 땀별 대기 관람객 허탈 예행연습 과정 소음에 축산 농가·노령층 항의 있었던 듯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전격 취소된 것을 두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장흥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장흥읍 탐진강변 상공에서 열린 예정이던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행사 6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공군 특수비행단은 지난달 29일 장흥 상공에서 예행 연습을 해 기대감을 한껏 높였으나 에어쇼 당일 오전 9시 갑작스럽게 장흥군에 행사 취소를 통보했다.

장흥군은 행사 6시간 전 취소 통보를 받고 부라 부라 지역민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을

방송으로 취소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수일 전부터 대대적인 홍보가 이어진데다 휴가철과 함께 주말을 맞아 이날 장흥에는 관광객 등 외부에서 많은 인파가 모였다. 행사가 취소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에어쇼를 구경하기 위해 무더위 속에서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하늘을 쳐다보며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다. 결국 기다렸던 공군 전투기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허탈해하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선 행사 이틀전 열린 예행연습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기 소음에 놀란 축산 농가들이 가족 피해를 우려해 공군 측에 항의해 취소됐다

는 얘기가 나돌았다. 축산농가들과 노령층 주민들의 항의가 일자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취소됐다는 것이다.

이와달리 기대를 모았던 관광객 등 일부 애호가들은 이날 기상상태가 양호했음에도 에어쇼를 취소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공군측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인홍 장흥군 문화관광과장은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막 부대행사이자 지역주민 볼거리 제공 및 코로나 극복기원을 위해 비대면으로 기획했는데 예행연습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줄 몰랐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오는 20일 정식 개관하는 담빛시네마 내부 모습. <담양군 제공>

## 담양, 상설영화관 부활했다

### 담빛시네마 20일 개관... 18·19일 무료 이벤트

담양군이 전국 동시 개봉영화를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춘 작은영화관 '담빛시네마'를 20일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담빛시네마는 담양문화회관 옆 신축건물인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자리잡았다.

상영관 2개관 99석과 매점, 휴게소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2D와 3D 입체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생활과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담빛시네마는 전국적인 로컬시네마 업체인 ㈜댕스코가 위탁 운영한다. 관람료는 대도시 일반 영화관의 60~70% 수준인 성인 6000원이다. 연중무휴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

된다.

정식 개관에 앞서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간 무료상영 이벤트를 연다. 상영작은 김윤석·조인성 주연의 '모가다슈', 황정민 주연의 '인질' 등 2편이다. 당일 오전 11시부터 무료 관람권을 배부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1960년대 영화 전성기를 누렸던 담양극장, 명성극장 등 그 시절 옛 영화를 소중히 간직했던 추억을 상기시키는 상설영화관의 부활"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을 위로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화순군, 아동센터에 과일바구니 선물

화순군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 386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건강 과일바구니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건강 과일바구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지원하고 영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화순군보건소가 안전성과 신선도를 겸수한 과일·채소는 매주 화요일, 2개 품목씩 지역아동센터 16곳에 배송된다.

영양사가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건강한 식

생활 실천 유도 영양 교육, 흡연 예방, 구강 관리 교육 등 통합 보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자체 영양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양 교육 자료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건강 과일바구니 사업을 통해 성장기 아동이 안전하고 신선한 제철 과일을 섭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하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화순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과일바구니 사업으로 지급된 꾸러미를 들어 보이고 있다. <화순군 제공>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